

순창군 건강힐링교육 각광

관광자원·농특산물 융합 기업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화

순창군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융합해 추진하는 힐링교육이 기업연수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으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

군은 목표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총 16차례의 힐링교육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건강 힐링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현대사회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마음비우기 명상, 편백나무숲 트레킹,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건강요리 실습 등 순창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최성규 차장은 "조선업계가 불황인 이따에 건강 힐링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사기 진작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측은 이미 다양한 힐링교육 사업을 진행해 전국의 도시민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힐링교육 일번지로 인정받고 있어 이번 기업연수 프로그램 성과에도 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측은 지난해 (재)풀무원생활건강과 함께하는 '내몸다스림투어' 도시민을 대상으로한 '건강장수힐링



순창군은 목표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총 16차례의 힐링교육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체험프로그램,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데이 디지털교육,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운영프로그램 등 총 73회 교육을 운영해 2,800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교육 후 평가에서도 만족도가 높아 교육생들의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올해는 기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국 제일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원데이 디지털교육, 토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요리 교실 등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특산물직판장 방문, 농장체험 등을 확대해 지역 농산물 판매 등과도 연계해 교육사업이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신청하세요”

남원시 민간보급 확대키로

남원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800만원부터 1,306만원, 초소형전기자동차는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기간 1년이상 거주자로 공고일(3.12.)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시민이나 남원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사업자에 해당되며 보조차종은 환경부에서 승인한 16종으로 한정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 12일 남원시 홈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구매지원신청이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대상자 선정시 취약계층·다자녀가구에 40%를 배정하여 일반 시민과 구분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취약계층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가 해당되며 자격조건 및 지원방법,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환경과(620-6235)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영업대리점)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설 비상진료대책 가동

임실군은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5일 부터 18일까지 4일간 응급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진료 이용 편의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하는 비상진료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임실군보건의료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병·의원 6개소는 군민들의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약국 9개소를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 운영해 의약품 구입하는데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관내 일부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인 종합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6가지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한다.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임실군보건의료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중 진료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이용 문의에 대비해 임실군보건의료원에 비상진료대책상황반(640-3110)을 운영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한우 기반다지기 돌입

10억1000만원 투입 체계적 한우개량사업 박차

임실군은 우수한 형질을 개량·보존하고 임실한우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체계적인 한우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1군 정액지원사업과 암소 유전형질개량사업,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한우고급육생산기반확충사업에 10억1000만원을 투입해 한우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1군 정액지원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암소 유전형질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한우 기반 구축사업이다.

군은 2015년부터 4년간 3억2000만원을 투입해 우량송아지 생산에 박차를 가해 축산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에도 1억원(군비)의 사업비를

들여 가임암소 10,000두에 1군 우량정액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을 통해 후대축 도축성적 등을 활용하여 임실 한우만의 차별성과 개량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암소유전형질개량사업은 체계적인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를 하고 있으며, 한우고급육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수정료 및 초음파육질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우 개량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시장개방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임실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순창군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쌀소득보전 군비 직불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비 직불금 지급대상 인원은 총 4,747농가, 6,532ha로 1,000㎡ 당 6만 1,230원이 지급되며, 이는 2017년 4만 5,300원 보다 1만5,930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4,732농가에 3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전년도보다 무려 10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비 직불금 지급시에는 ‘순창군쌀직불’로 명기해 농가 개인통장에 지급된다.

황숙주 군수는 “영농비는 계속되어 인상되고 있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금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4월 20일까지 신청 받고 있으므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임실군에 각계각층의 나눔의 손길이 줄 있고 있는 가운데 임실지부 한돈협회가 한돈 400만원 상당을 기탁하고 있다.

따뜻한 명절 ‘사랑의 손길’ 붓물

임실군, 한우·한돈협회 등 나눔활동 줄이어

설 명절을 맞아 임실군에 각계각층의 나눔의 손길이 이 줄고 있고 있어 폭설과 한파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13일 오전 전국한우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김필기)와 대한한돈협회 임실군지부(지부장 김성두)는 임실군을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가정 및 아동그룹홈 등에게 함께 나누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각 한우 140kg(50만원 상당)와 한돈 500kg(400만원 상당)을 기탁하고 온정을 나누었다.

이들 협회는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나눔활동에 솔선수범 참여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단체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또한 (재)어업법인 섬진강다슬기마을(대표 최기술)에서도 같은 날 임실군을 방문하여 백미 400kg을 전달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설 명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확산에 동참했다.

임실군은 이날 전달된 한우·한돈 및 백미를 기탁자의 취지에 따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후 관내 저소득가정 및 아동그룹홈 등 250여가구에 골고루 전달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올 겨울 이례적인 한파가 계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며 “임실군도 나눔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6일간의 일정 마무리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실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안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문영두 의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빙기 재난 안전 예방 점검과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논어의 ‘부진즉퇴(不進即退)’라는 말처럼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솔선수범하여 항상 고민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판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